

보 도 설 명 자 료

(19. 9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文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
“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
감춰”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(조선일보 9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“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
감추었다”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
발전소로 現정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인·허가한 바 없음

◇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의
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

◇ 9.25일 조선일보 <文대통령, 유엔서 “석탄발전소 감축 중”...환경
단체들 “실상 왜곡한 거짓 발표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
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탈원전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췄음

-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대한 ‘기후행동 정상회의’
기조연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“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”라고 반발

□ BP “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CO₂ 배출량은 사상
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.8%, 탈원전 시행 전인 ‘16년보다 5.3% 증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(1) “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”는
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*는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(6차,
‘13.2월)에 최초 반영되어 과거 정부에서 인·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
現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·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

*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 : (신서천) ‘13.9월, (고성하이#1-2) ‘13.4월,
(강릉안인#1-2) ‘13.4월, (삼척#1-2) ‘13.7월

(2) “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”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

-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, ‘23년
까지는 오히려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*·운영될 예정임

* 신고리4(‘19년), 신한울1(‘19년), 신한울2(‘20년), 신고리5(‘23년), 신고리6(‘24년)

- 現정부 출범 후 총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
전력수급은 차질없이 관리되어 왔음

(3)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의
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

*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 : (‘17년) 43.1% → (‘30년) 36.1%

-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, 노후
석탄 10기 조기폐지*, 석탄 6기 LNG전환**, 환경설비 투자확대
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,

*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‘22년까지 조기 폐쇄(당초 ‘25년)

- 현재까지 4기 : 서천 1-2(‘17.7월), 영동 1(‘17.7월), 영동2(‘19.1월)

** LNG 전환 6기 : (신규) 당진에코 1-2 (운영중) 태안 1-2, 삼천포 3-4

-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
제시할 예정임

- 아울러,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 **봄철 예방정비 집중시행***, **상한 제약 확대****, **저유황탄 사용 확대** 등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 대책을 추진 중임

* 봄철 3~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시행

** 기존 36기(석탄 30, 유류 6) → 개선 67기(석탄 60기 전체, 유류7)

- (4) 기사에서 언급한 BP보고서 통계는 **우리나라 전체 CO₂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로**,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증가 원인을 **석탄·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**

*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

- '18년 CO₂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(2020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)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

※ 문의 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, 박환준 사무관(5154)
산업환경과 권기성 서기관(4235), 김애선 주무관(4237)